수출 기업을 위한

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

2023. 6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Ⅰ. 해외인증의 중요성 ····· 1

Ⅱ. 현황 및 문제점 ····· 2

Ⅲ. 추진 전략 ····· 6

Ⅳ. 추진 과제 ····· 7

1. 수출업계 해외인증 국내 취득 확대 ····· 7

2. 통합 정보 제공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 ··· 11

3. 수출기업 맞춤형 집중 지원 ····· 13

4. 해외인증 지원체계 구축 ····· 15

Ⅴ. 추진 일정 ····· 17

Ⅰ. 해외인증의 중요성

□ 수출 첫 관문으로 해외인증 취득은 필수 불가결

○ 각국은 **자국민의 안전·보건·환경보호** 등을 위해 인증 제품에 한하여 **수출입을 허가하는 인증제도 운영**

○ **해외인증은 수출의 첫 관문**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정보 사전 파악, 대상 **해외인증 취득이 필수 불가결**

* 수출기업 **주요 취득 해외인증**: **북미 36개**, **유럽 36개**, 중남미 6개, 아시아 43개, 중동 9개 등 **53개국 152개** (1381/수출바우처사업/시험인증기관 자료, '23.4월)

미국	유럽	중국	일본
정보통신기기, 의료기기, 조리기기 등	의료기기, 통신단말기, 산업용 기계류 등	전선, 케이블, 농기계 제품 등	전선, 배선기구, 리튬이온 축전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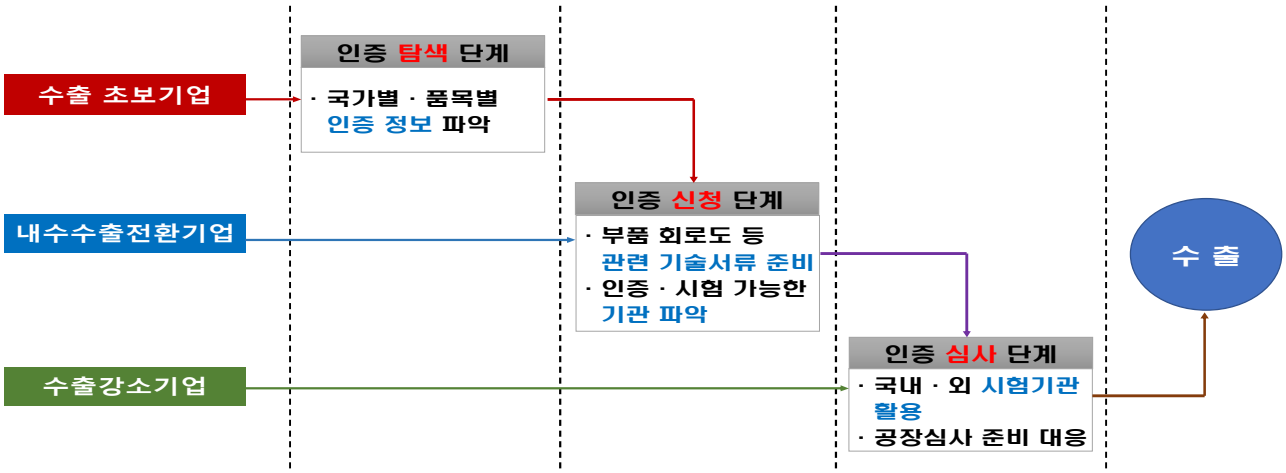
□ 해외인증은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로서 애로 내용 다양

○ 수출애로 상담 가운데 **해외인증이 약 20%를 점유**하는 등 **수출기업의 주요 애로**

* 코트라 **수출기업 상담**('22년 27,042건): ①바이어발굴(6,282건, 23.3%), **②인증·규격(5,325건, 19.7%)**, ③무역실무(5,175건, 19.1%), ④관세통관(4,575건, 16.9%)

○ **수출기업별**(수출초보·내수수출전환·수출강소), **인증 취득 단계별**(탐색·신청·심사)로 정보 부족, 전문인력 미보유 등 **애로 내용 다양**

< 수출 기업별-인증 취득 단계별 흐름도 >



Ⅱ. 현황 및 문제점

□ (인증 탐색 단계) 산재한 정보 탐색에 어려움

○ **(정보 파악 어려움)** 국가별 인증이 **다수**이고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우며 **관련 정보가 산재되어 수출기업이 활용에 한계**

< 주요 기관별 해외인증 정보 제공 현황 >

○ 해외인증 관련 기관(시험인증기관, 코트라 등 수출무역 지원기관 등)에서 기관별 사이트를 통해 **121개국 583개 해외인증 정보를 제공**

국가기술표준원	한국무역협회	코트라(KOTRA)	중소벤처기업부	보건복지부
1381 인증 표준 콜센터	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	kotra 해외시장뉴스	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센터	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

○ **(급변하는 규제)** 해외규제가 급변하는 경우 **대기업**도 내용 파악이 어려워 **적기 대응이 어렵고 비용이 부담 큼**

* 무역기술장벽(TBT) 통보추이(건): ('10) 1,869 → ('18) 3,063 → ('20) 3,352 → ('22) 3,896

例) 해외규제 강화 대응사례 ('2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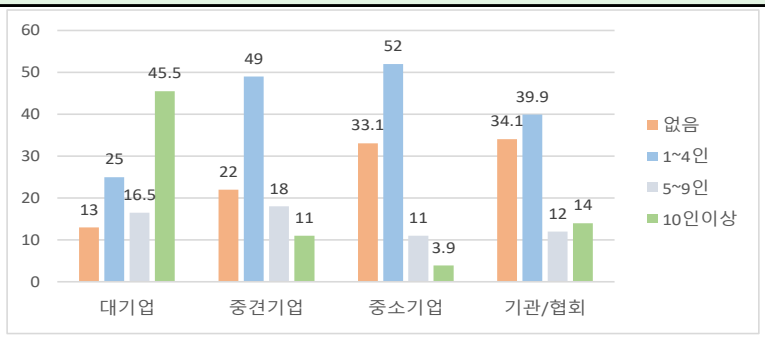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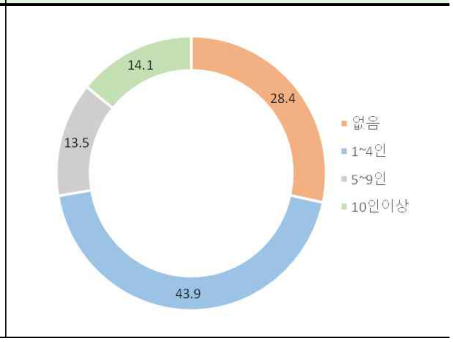
- **(과도한 규제)** 칠레는 **자동차 안전인증** 평가항목을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규제 → 다양한 안전성 평가계획 허용 개정안 발표 (약 35.2천만 달러 해소)
- **(불투명한 규제)** 태국 **세탁기** 지정시험소 및 관련 정보 부족으로 시행일前 **인증획득 불가** → 지정시험소 등 정보제공, 시행일前 인증 완료 지원 (약 4.5천만 달러 해소)
- **(급박한 시행일)** 코로나19로 인도 **화학섬유 제품인증** 지연으로 시행일前 인증획득 불가 → 규제 시행일을 2차례 연기, 수출 유지 (약 2.9천만 달러 해소)

□ (인증 신청 단계)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비용부담이 큼

○ **(전문인력 부족)** 복잡한 요구서류, 시험 등 대상 인증 전문지식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**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**에서 **대응 한계**

* 기술규제 전담인력이 없는 기업이 503개사 중 143개사(28.4%) 차지(한국표준협회)

< **TBT 대응 전담인력 설문조사 현황** ('19년 한국표준협회, 조사대상 503개사) >

기업 규모별 기술규제(인증 포함) 전담인력 보유 비율	국내기업 기술규제 전담인력 수
	

○ **(비용 부담) 수출초보 기업** 및 **신규 시장개척 기업**의 경우 **해외 인증 비용 부담**이 크지만 정부의 해외인증 **비용 지원은 제한적**

* 사례) 매출 20억원의 의료기기 업체가 '22년 해외인증 관련 비용에 2억원 사용

□ (인증 심사 단계) 해외 시험을 위한 시료 송부, 인증 심사 대응

○ **(해외 시험·심사)**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**상호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해외 심사가 원칙**

- 시료 송부, 심사 대응, 외국심사원 국내 공장심사 등에 **시간, 비용, 전문성 측면 어려움이 큼**

<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활용 해외인증 취득 절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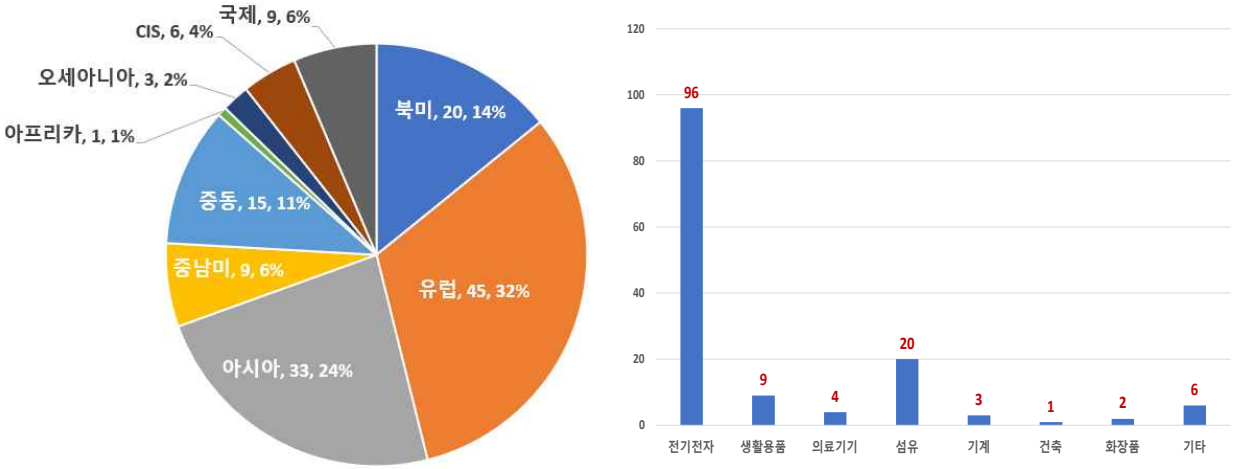
○ **(상호인정)** 국내 주요 시험기관이 **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취득 난이도가 높은 45개국 71개 해외인증 대상 상호인정 지원**

⇨ 국내 시험기관에서 **국내 시험을 통한 비용 저감과 기간 단축 효과**

- 한편, 중국 CCC인증 등은 외국시험 수용에 소극적으로 상호인정 곤란
- 또한, **융복합 新기술 시험인증 인프라** 등 **글로벌 경쟁력 부족**으로 **해외인증 서비스 지원 제한**

* 국내 방폭 시험기관은 3곳(한국산업기술시험원, 가스안전공사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이 있으나, 북미 방폭인증(UL Hazloc)에는 적합하지 않아 시험장비 고도화 필요

< 국내 주요 시험기관 상호인정 지원 71개 인증(141개 품목(기관·인증 중복 포함)) >



□ 해외인증 지원 관련 범국가적 역량 결집 미흡

○ **(거버넌스 미흡)** 각 부처·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해외인증 지원 사업에 대한 **정보 제공 및 사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 필요**

- 「해외인증 지원단」 출범('23.4.4.) 및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개설하였으나 **범부처 운영을 위한 명확한 설치 근거 필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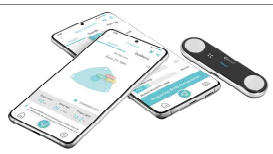
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 부처가 되어 각 기업들의
수출과 수주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과
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내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해결

* '22.11.23.,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

〈 해외인증 애로 유형 〉

애로유형		
정보 부족	**[선박용 부품] 유럽 CE-MED 인증** ▸**선박용 조명** 수출 준비 업체 D사는 선박용 조명 수출에 필요한 **방수, 방온, 방폭 성능 수준**과 관련 **인증 정보를 알지 못해 사전 준비에 애로 호소**	
	[식품] 할랄 인증 ▸**식품** 제조업체 D사와 O사는 기존 수출시장인 동남아시아 이외에 **중동 시장 개척을 모색**하고 있으나, 인증기관, 지역별 할랄인증 기준/조건에 차이가 있고 **관련 정보가 부족**하여 **새로운 시장개척에 애로**	
	[화장품] 미국 FDA 인증 및 중국 NMPA 인증 ▸**화장품** 제조 유통업체 J사는 중국, 미국, 아랍에미리트 수출 과정에서 정부 해외인증 취득사업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, 수출 납기일정과 **사업 지원 시기,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** 지원을 받지 못함	

애로유형		
컨설팅 필요	**[선박용 부품] 유럽 CE-MED 인증** ▸**선박용 조명** 납품업체 S사는 유럽 선박 제작업체의 요청으로 **선급 LED 조명 인증**을 받으려고 했지만 선박용 제품에 필요한 **인증 취득 기간과 절차가 복잡하여 컨설팅 애로 호소**	
	[의료기기] 유럽 CE-MDR 인증 ▸**초음파 영상진단장치** 수출업체 R사는 유럽 의료기기 CE 인증 변경에 따른 전환과정에서 **인허가 인력 부족, 정보 부족 등 인증 어려움으로 컨설팅 요청**	

애로유형		
전문인력 부족	**[헬스기기] 유럽 CE 인증** ▸**스마트 헬스기기** 수출업체 O사는 유럽 수출을 위해 유럽 CE 인증을 준비하였지만 관련 **인증 전문 인력을 찾지 못하여 수출 준비에 차질**	

애로유형		
비용 부담	**[전기전자 제품] 미국 UL 인증 및 미국 FCC 인증** ▸**반도체 바이오 센서** 제조업체 S사는 미국 수출을 위해 **FCC와 UL인증**을 함께 취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**인증 비용 부담 호소**	
	▸**스마트 LED 컨버터** 제조업체 S사는 미국 바이어와의 수출 준비를 위해 **UL 인증**을 취득하였으나, 수출 중단으로 **인증 사후관리 유지에 어려움 호소**	

Ⅲ. 추진 전략

비전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통해 **글로벌 시장 확대**

추진 목표

◆ **[상호인정] 비용 · 시간 단축을 위해 상호인정 확대**
- 71개 인증 141개 품목 → **83개 인증 171개 품목**

◆ **[지원허브] 해외인증 정보 · 지원 원스톱 제공**
- 121개국 **583개 해외인증 정보** 통합 제공, **50대 품목** 가이드북 **단계적 발간**

◆ **[역량결집] 해외인증 지원단을 통한 범부처 역량 결집 · 해소**
- **1,000개사** 대상 지역 순회 **설명회**, **100개사** 현장 **컨설팅**, **30개사 심층진단**

세부 추진 과제

추진 과제

1. 수출업계 해외인증 국내 취득 확대	❶ 국내·외 기관간 **상호인정 품목 30개 확대** ❷ 지역별 해외인증 지원 **기반 확대**
2. 통합 정보 제공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	❶ 해외인증 **통합 정보 원스톱** 제공 ❷ 해외 기술규제 **신속 대응**
3. 수출기업 맞춤형 집중 지원	❶ 찾아가는 **설명회** 및 맞춤형 **자문·인력양성** ❷ 기업 **제품 개발 단계별 밀착 지원**
4. 해외인증 지원체계 구축	❶ 해외인증 지원 **거버넌스 강화** ❷ 애로 통합관리 및 신속 해소 프로세스 구축

Ⅳ. 추진 과제

1 수출업계 해외인증 국내 취득 확대

❶ 국내·외 기관간 상호인정 품목 30개 확대 ('23년, 141개 → 171개)

◇ **상호인정 품목 대폭 확대(30개)로 해외인증 취득 비용·시간 단축**

* 45개국 71개 인증 **141개 품목** → 49개국 83개 인증 **171개 품목**

◇ **융·복합 및 新기술 시험인증을 위한 시험인증 역량 강화**

○ 국내 주요 시험기관의 **상호인정 지원을 대폭 확대**하여 수출기업의 **해외인증 취득 비용·시간을 대폭 절감** (49개국 83개 인증 **171개 품목**)

- 인증 취득 난이도가 높거나 국내 영리시험기관이 지원하기 힘든 **융복합 新기술 분야 등 수출기업 수요 반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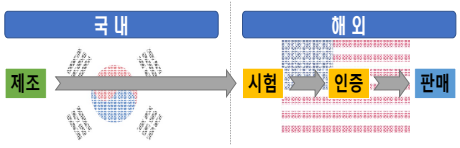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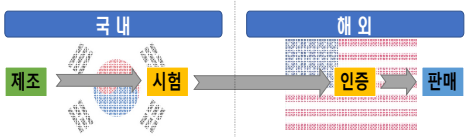
< **전기차 충전기** 분야 **상호인정 사례 분석** >

구분	(기존) 해외 시험인증기관	(개선) 국내 시험인증기관
비용	약 1억원	약 3천만원
처리기한	4개월 이상	2개월
시험장소	현지	국내 시험인증기관
언어	해당 국가 언어	한국어

⇨ **업계 수요를 적극 발굴**하여 **상호인정 지원 품목 지속 확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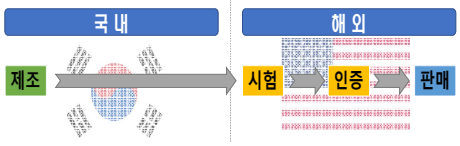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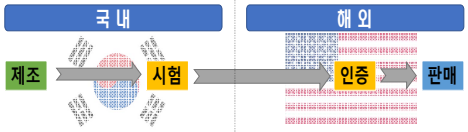
○ 전기전자(방폭 인증 등), **의료기기 등 규제 강화** 및 **차세대 배터리 등 新기술규제 도입** 대비 국내시험인증 기반 마련하여 상호인정 추진 ('24년~)

〈 상호인정 지원 기대효과 〉

품목	이전 (AS IS)	이후 (TO BE)
생분해 플라스틱 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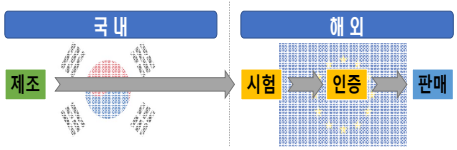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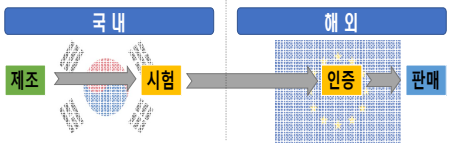
기대효과

◥ 미국 생분해성 인증(BPI) 인증획득 지원
- (기간) 10~14개월 ⇨ 8~12개월 (**시험기간 2개월 단축**)
- (비용) 3~4천만원 ⇨ 2.5~3.5천만원 (**5백만원 비용 절감**)

품목	이전 (AS IS)	이후 (TO BE)
자율주행 통신기기 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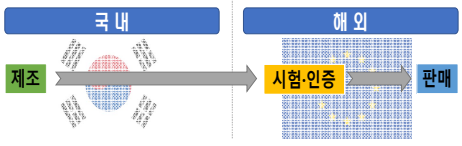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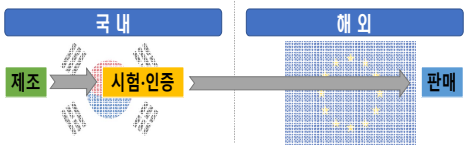
기대효과

◥ 미국 Omni Air 시험기관으로 지정
- (기간) 180 시간 ⇨ 64 시간 **(시험기간 4~5일 단축)**
- (비용) 7천만원 ⇨ 5천만원 **(2천만원 비용 절감)**

품목	이전 (AS IS)	이후 (TO BE)
의료기기 MDR 		

기대효과

◥ 유럽 MDR 시험기관으로 지정
- (기간) 2~3년 ⇨ 1.5~2.5년 **(시험기간 6개월 단축)**
- (비용) 1.5~2억원 ⇨ 1~1.5억원 **(5천만원 비용 절감)**

품목	이전 (AS IS)	이후 (TO BE)
사이버 보안 인증 		

기대효과

◥ 유럽 CE 사이버보안 시험기관으로 지정 (자기적합성선언(DoC) 품목)
- (기간) 기존 대비 **인증기간 3주 단축**
- (비용) **1천만원 비용 절감**

❷ 지역별 해외인증 지원 기반 확대

◇ **[북미] 新산업 분야 시험소 지정 및 발전 기자재 교육·컨설팅 협력**

◇ **[유럽] 탄소규제 대응 검증 기반 및 현지 인증기관 진출 추진**

◇ **[중국] 중국 인증 공장심사원 등록 등 정부 차원 지원 모색**

◇ **[동남아·중동] 시장 개척을 위한 인증 기반 확대**



북미 新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미국 시험소로 지정 추진

○ **전기차 충전기, 의료기기 등 新산업 분야**를 중심으로 미국 인증기관과 인증협력 채널 구축(MoU 체결, '23.4월) 및 **시험소 지정 추진**

* (전기차 충전기) 美 UL-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MoU → 美 UL과 시험 협력

* (체외진단기기·의료기기) 美 혈액은행협회-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MoU → 美 인허가 지원

○ 북미 **발전 기자재** 등 분야 수출기업 시험·인증 지원을 위해 **미국기계기술자학회(ASME)**의 **교육·컨설팅 협력기관** 지정 추진 ('23년~)

* ASME(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, 미국기계기술자학회): 미국 기계 등 각종 공학 분야의 교육·기술·표준·인증에 중점을 둔 대표적인 표준화 기관



유럽 탄소규제 대응 검증 기반 및 현지 인증기관 진출 추진

○ **유럽 CBAM** 및 **新 배터리 규제** 등 **탄소규제 적기 대응**을 위한 **국제상호인정 기반 구축** ('23년~)

* CBAM('23.10월 보고, '26.1월 인증서구매), 배터리 규제('24.7월 탄소배출 공개)

- **국내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**하는 기관을 국제공인 검증기관으로 평가 승인하는 인정제도(KOLAS) 도입

○ **의료기기(MDR)*** 등의 **규제 강화**에 따른 업계 지원을 위해 **유럽 현지 합작법인 설립**('23.下) **및 유럽 인증기관(CE MDR) 지정 추진**('24년~)

*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 강화(MDD: Medical Devices Directive → MDR: Medical Device Regulation)

□ 중국 인증 공장심사 지원 등 중국 수출업계 지원

○ 상호인정 수용성이 낮은 **중국 인증(CCC) 신청기업**의 국내 **공장심사** 편의 증대를 위해 **국내 인력의 CCC 공장심사원 등록 추진** (~'24년)

* 중국 CCC 인증: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, 품질 안전 인증

○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旣 구축된 **중국 시험소(사무소)를 활용**하여 수출기업의 **중국 현지 시험·인증 지원 및 법정 대리인 역할 강화**

* 국내 주요 시험인증기관의 **중국 상해, 심천, 청도 등 시험소(사무소) 활용**

○ **한-중 전기전자 상호인정 등 적합성평가 분야 협력의 발전**을 위한 **인증 관련 논의체**(가칭: 한-중 인증협력 대화체) **신설 추진** ('23년~)

□ 동남아 및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한 인증 기반 확대

○ **(동남아)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개척**을 위해 국내 인증기관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(BPJPH)으로부터 **할랄인증기관으로 승인** 추진(계속~)

* 인도네시아는 할랄식품 1위 소비국가로서 세계 최대 할랄 시장(1,730억 달러, '19년)

< 국내 할랄인증기관을 통한 할랄인증 취득 절차 >



○ **(중동)** 우리 기업의 **중동시장 진출 지원**을 위해 아랍에미리트(UAE)의 **인증기관으로 지정 추진** ('23년~)

* UAE의 ECAS·EQM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**국내 시험기관에서 중동 전체 인증 가능** (걸프지역통합인증(GCC), 사우디아라비아인증(SASO) 등 병행 취득)

* ECAS(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, 식품·화장품·전기전자 대상 안전인증), EQM(Emirates Quality Mark, 식품·화장품·전기전자 대상 품질인증)

2 통합 정보 제공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

❶ 해외인증 통합 정보 원스톱 제공

◇ 「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」을 통해 해외인증 정보 원스톱 통합 제공

◇ 50대 주요 품목 심층정보 제공 및 틈새 해외인증에 대한 신속 대응

○ **(통합 정보)** 코트라·시험인증기관·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(중기부) 등 **유관기관에 구축된 해외인증 관련 정보(지원사업) 원스톱 제공**

* 「**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**(export.k-onestop.kr)」에서 **121개국 583개 인증정보** 통합 제공

* 수출 유망품목 인증제도(코트라, 80품목), 해외인증정보시스템(한국산업기술시험원, 400여개 인증),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(중기부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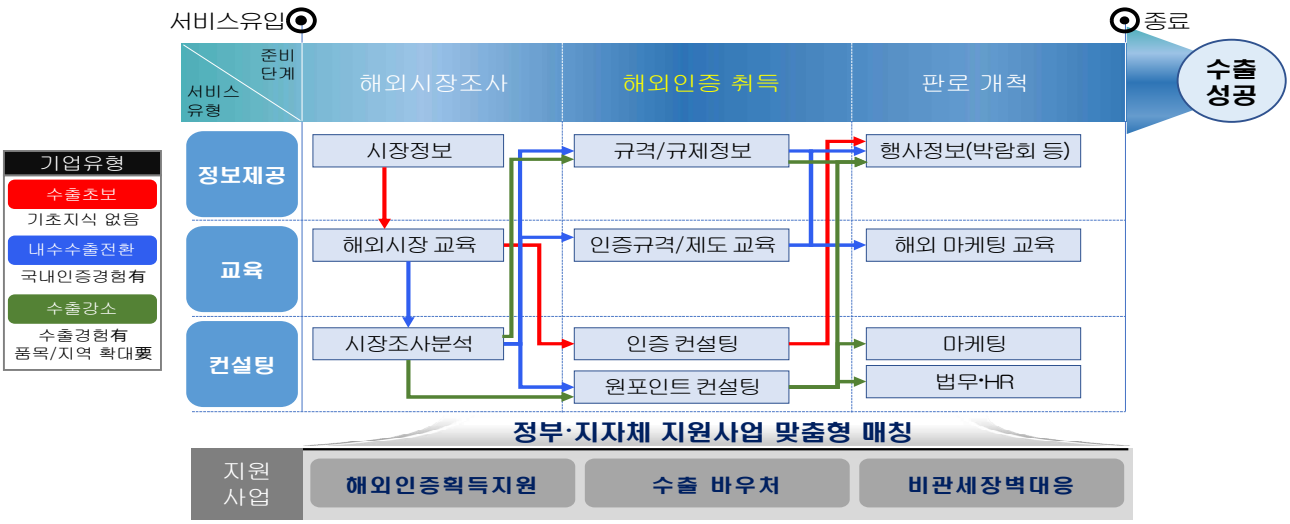
○ **(심층 정보)** 국내 상담 수요가 높은 **50대*** **품목은 단계적 가이드북 발간, 품목별 전문 상담사**를 발굴하여 **심층정보 제공**

* 전기전자제품, 화장품 등 수요가 많은 품목 우선 발간('23년, 20품목), 완구 등 전통 수출 품목 + 新 의료기기, 소방 등 신규 수출 유망 품목 추가 발간('24년, 30품목)

○ **(틈새 정보) 기존에 정보가 없는 틈새 해외인증**에 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 **해외 무역관 등을 통해 신속히 조사**하여 제공

* 전기차 충전기(OCCP 인증, 유럽), 보안 소프트웨어(ADISA, 인도) 등

<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활용 흐름도 >



❷ 해외 기술규제 신속 대응

◇ 해외 新산업 규제 도입 준비단계부터 수출기업에 선제적 정보 제공

◇ 정부 차원 외교적 대응으로 기업애로 적극 해소

○ **(정보 분석·전파)** 통합포털(KnowTBT 포털 연계) 및 협·단체를 통해 **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·분석하여 산업계에 전파**

○ **(전략 수립)**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**업계와 함께*** **규제 대응방안 수립**

* 민·관 공동 대응이 필요한 주요 新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응교류회를 운영

○ **(협상 대응)** WTO·FTA TBT 위원회, 통상장관회의 등 공식 채널을 통한 **신속 대응, 필요시 TBT 신속대응반을 적기·적소에 파견**

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 신속 대응 사례 ('22년)

•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 강화('22.12월) → **무역기술장벽(TBT) 신속대응반을 구성**하고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·내수 제품 간 **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 요청 (연 300억 원 가전제품 수출 정상화)**

< 해외 기술규제 대응체계 >

1단계 정보수집	2단계 분석·전파	3단계 전략수립	4단계 협상대응
WTO TBT 통보	기초조사	산업계 의견수렴	외교적 대응
WORLD TRADE ORGANIZATION	규제대상 품목(HS Code), 수출규모, 중소품목 여부 등	기업의 규제 피해 규모, 대응 요청사항 등	WTO/FTA TBT 위원회 활동, 양·다자협의
해외규제정보포털, 기업(해외지사)	심층분석보고서(I)	심층분석보고서(II)	컨설팅, 포럼, 홍보
	기업 실효적인 정보 중심 (규제개요, 규제 변경사항, 관련 법령 및 표준 등)	규제 국가별 대응전략 업종별 대응전략, 규제유형별 대응전략	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TBT포럼, 설명회

3 수출기업 맞춤형 집중 지원

❶ 찾아가는 설명회 및 맞춤형 자문 · 인력양성

◇ **현장의 애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및 현장 상담 실시**
◇ **기업의 해외인증 준비 수준별 맞춤형 자문 및 해외인증 인력양성**

○ **(찾아가는 설명회)** 해외인증 정보, 지원사업 안내 등 해외인증 관련 필요사항을 **지역 순회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제공** ('23년, **1,000개사**)

- 수출 관련 기관에서 개최하는 간담회, 정책설명회, 포럼* 등에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한 **현장 컨설팅을 진행** ('23년, **100개사**)

* 例) 붐업 코리아(4.13.), 강원 비즈니스 클럽(4.20.) 등을 방문 해외인증지원 안내·상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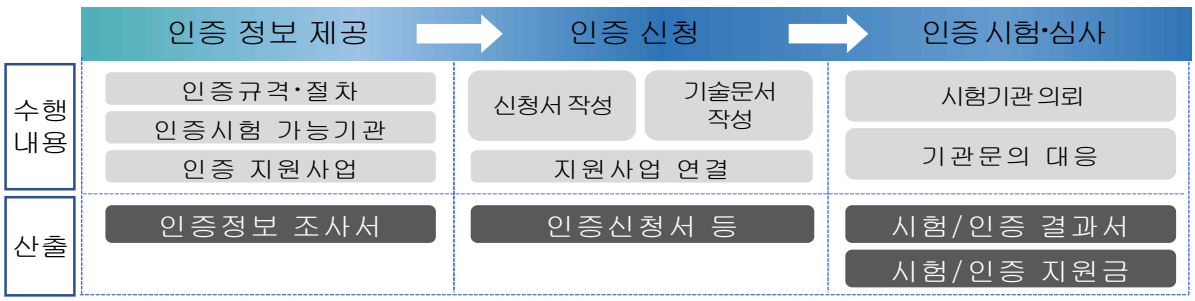
○ **(맞춤형 자문)** 기업의 해외인증 준비 **수준별 맞춤형 자문** ('23년, **30개사**)

① **(인증 정보 제공)** 전문인력이 부족한 **중소·영세 기업에 대해 단기 역량강화 교육 등 해외인증 정보 및 역량 함양 지원**

* '표준·인증 개요 등의 기본과정'과 '인증규격 및 기술문서 작성 등의 심화과정' 운영

② **(인증 신청 지원) 인증신청서, 기술문서 작성 등 인증신청 업무**를 지원하고, 필요시 **관계부처 해외인증 관련 지원 사업을 매칭**

③ **(인증 시험·심사 자문) 국내외 시험 가능 기관을 안내**하고, 시험·인증 결과서 등에 대한 **기술 자문**



○ **(인력양성)** 국내 대학 표준·적합성 전공학과* 등과 협력하여 **수출-해외인증 특화 청년인력**(Young Professionals) 양성 ('24년~)

* 중앙대, 고려대, 부산대 등 5개 대학에서 표준·적합성 전문과정 운영 중

❷ 기업 제품 개발 단계별 밀착 지원

◇ **융합 신기술·혁신기술 개발 기업에 대해 1:1 매칭 해외시장 진출 지원**

◇ **글로벌 표준·인증에 적합(디버깅 대응)한 제품 설계·개발 지원 추진**

○ **(기술개발 단계) 연구개발(R&D) 사업의 결과물로 국제표준이 개발** 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

* 연구개발(R&D) 사업 결과물로 **국제표준 개발 → 해외인증 인증기준 기반 확보**

○ **(국제표준화 단계) 융합 신기술·혁신기술** 보유 기업 대상 해외 진출을 위한 **인증기반 국제표준화 전문가 1:1 매치업 밀착 지원**

- **표준·인증 수요기업을 발굴**하고 해외진출 필요 단계별* 구분 지원

* 표준화 정보 조사·분석, 표준화 경제성 분석, 국제표준화 개발 등 단계별 지원

< 매치업사업 주요성과 사례 >

- 개발중인 연료전지 국제표준 적용범위에 기업제품(메탄올 연료전지) 반영
- 기업 개발 시스템과 연계하여 반도체 공정가스 농도·유량측정기술 ISO표준 개발 중
- 국내 기술·표준 기반 전자출입부 기록 절차(언택트 방문증) 기술 ITU 표준 개발 중
- 디테일 이미지 포맷 기술 ISO/IEC JTC 1/SC 29 표준 제정 완료

○ **(제품개발 단계)**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**국·내외 기준에 적합**하도록 설계하여 **선제적 디버깅*** 예방, **국내·외 시장 병행 진출 지원** ('24년~)

* 시험인증 과정에서의 기준에 맞게 설계 변경(디버깅)하는 과정

- 수출 대상 국가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**참여기관(시험인증기관) Know-How를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 추진**

* 국내·외 시장 출시 단계에서도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포인트 성능개선 지원

例) 글로벌 표준 적합 설계

- **KS인증(KS F 2564)을 획득한 A사**는 유럽 진출을 위한 **CE인증(EN 14889-1)을 병행 추진**하면서 해외인증 표준 요구사항 차이를 **제품시험 단계에서 설계 변경**
- 해외전시회 및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와 수출 계약 후 **해당 국가 인증 표준에 적합하게 제품설계 신속 변경**, 제품시험 합격 및 인증 취득

4 해외인증 지원체계 구축

❶ 해외인증 지원 거버넌스 강화

◇ **해외인증 全과정에 효과적 현장 지원을 위해 「해외인증 지원단」 운영**

◇ **범정부 지원사업의 성과 관리 및 「해외인증 지원단」 상설 조직화**

○ **(범부처 정책협의회 구성)** 해외인증 관련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위원(위원장: 국표원장)으로 하는 **'해외인증 지원 정책협의회' 구성**

- **(해외인증 지원단*** **운영)** 해외인증 **취득 전(全)주기 종합 지원**을 위해 **현장 중심 민·관 합동 「해외인증 지원단」 운영** ('23.4.4. 출범)

  * 국표원장을 단장으로 정부·한국표준협회·시험인증기관 등 민·관 합동으로 구성

- **(민·관 네트워크 강화) 「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**('23.1월 발족)**」***를 통해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증과 마케팅간 시너지 방안 모색

  * 국내 시험인증기관, KOTRA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표준협회 등 12개 기관 참여, 향후 고가 시험장비 활용 등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추가 참여 검토

- **(해외 협력채널 구축) 「글로벌 인증 전문기관 협의체」**를 운영하여 업계 애로 해소 지원 ('23.4월 발족)

  * UL(미국), 인터텍(영국), BV(프랑스), TUV(독일), CSA(캐나다) 등 5개 기관으로 구성

< 해외인증 지원단 구성 및 협업 네트워크 >



○ **(성과 관리)** 해외인증 지원 정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**분기별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이행 실적 점검**

  * 부처별 해외인증 상담 내용 및 지원 현황 조사 등을 통한 정책 데이터로 활용

○ **(상설 조직화) '해외인증 지원단' 직제화**(총리 훈령 등)를 통해 정부 내 해외인증 거버넌스 체계의 **원활한 운영 도모**

❷ 애로 통합관리 및 신속 해소 프로세스 구축

◇ **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**

◇ **기업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 체계 마련**

○ **(애로정보 통합관리 체계)** 각 부처, 기관의 **해외인증 지원 창구에 접수된 애로 정보를 수집**하여 **범부처 애로정보 총괄·관리**

① **(정보 관리)** 개별 창구에서 접수된 **기업애로 및 처리결과를 해외인증 지원단에 공유**하여 통합 관리

② **(정보 보급)**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**해외인증 수요, 애로 유형별 대응 방안** 등을 **유관기관에 전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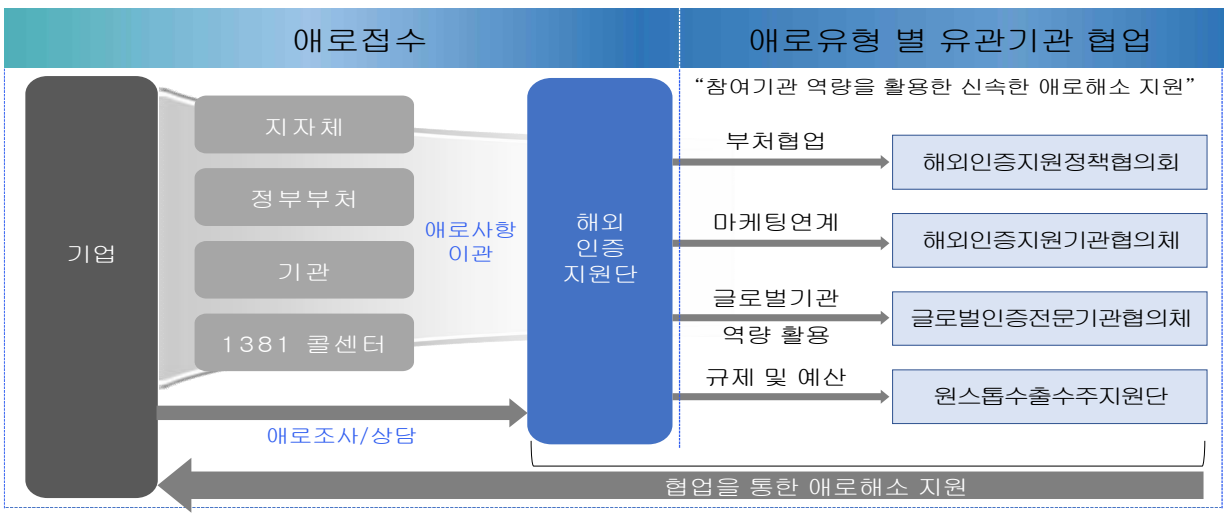
○ **(애로해소 프로세스 구축)** 애로의 유형별로 **민·관 대응체계 구축**

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 **개별 창구에서 일차적 기업 애로해소 지원**

② 개별 대응이 어려운 경우 지원단을 통해 **애로 유형별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**을 통해 신속 해소

③ 융·복합 분야, **안전·보건·환경 관련 해외인증 등 정책적인 애로**는 **'해외인증 지원 정책협의회'**를 통해 해소방안 모색

< 기업 해외인증 애로해소 프로세스 >



Ⅴ. 추진 일정

과제		추진기관	추진시기
수출업계 해외진출 지원 및 맞춤형 밀착 지원			
1. 수출업계 해외인증 국내 취득 확대	**❶ 국내·외 기관간 상호인정 품목 30개 확대**		
	▸ 상호인정 지원 품목 30개 확대	시험인증기관	~'23년
	▸ 국내 시험인증 기반 마련 상호인정 추진	산업부	'24년~
	❷ 지역별 해외인증 지원 기반 확대		
	▸ 미국 시험소 지정 추진	시험인증기관	'23년~
	▸ 탄소규제 대응 국내 기반 마련	산업부	'23년~
	▸ 유럽 합작법인 설립·인증기관 지정 추진	시험인증기관	'23년~
	▸ 중국 CCC인증 공장심사원 등록 추진	산업부	~'24년
	▸ 동남아 및 중동 인증기관 지정 추진	시험인증기관	'23년~
2. 통합 정보 제공 및 신속 대응 체계 마련	**❶ 해외인증 통합 정보 원스톱 제공**		
	▸ 「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」 구축·운영	산업부	'23.4월~
	▸ 50대 품목 가이드라인 단계적 발간	산업부	'23.4월~
	❷ 해외 기술규제 신속 대응		
	▸ 기술규제 정보 산업계 전파	산업부	상시
	▸ TBT 신속대응반 파견	산업부	상시
3. 수출기업 맞춤형 집중 지원	**❶ 찾아가는 설명회 및 맞춤형 자문·인력양성**		
	▸ 해외인증 지역 순회 설명회(1,000개사)	산업부	'23.4월~
	▸ 현장 컨설팅(100개사) 및 맞춤형 자문(30개사)	산업부	'23.4월~
	▸ 수출-해외인증 특화 청년 인력양성	산업부	'24년~
	❷ 기업 제품 개발 단계별 밀착 지원		
	▸ R&D 연계 표준화 및 기술기준 개발	산업부, 과기정통부	상시
	▸ 전문가 1:1 매치업 밀착 지원	산업부, 과기정통부	상시
	▸ 글로벌 기준 적합 설계 연구 개발 지원	산업부	'24년~
「해외인증 지원단」 구성 및 운영			
4. 해외인증 지원체계 구축	**❶ 해외인증 지원 거버넌스 강화**		
	▸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·운영	산업부	'23.1월~
	▸ 글로벌 인증 전문기관 협의체	산업부	'23.上~
	❷ 애로 통합관리 및 신속 해소 프로세스 구축		
	▸ 범부처 애로 총괄·관리	산업부	'23.4월~
	▸ 해외인증 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·운영	산업부	'23.上~